

월요광장

매력적인 도시가 사람과 일자리를 부른다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연구실장

7월 준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름휴가를 화제로 삼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산을 좋아하면 등산이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산으로 휴가를 가고, 바다를 좋아하면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계도 잡을 수 있는 바다로 갈 것이다. 최근 각 지역에 개봉된 다양한 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관광지가 아닌 생소한 지역으로 가서 주변의 골목길이나 들길을 무작정 걷다가 오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여름휴가의 형태가 개인의 선호를 보여 주듯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

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정치적인 의사표시와 유사하게 보아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로 설명하기도 한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그 지역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선택은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배경, 공공서비스, 자연조건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인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와 주거비이다. 사람이 많은 곳은 일자리 기회가 많아져 도시의 집중도를 높이지만, 주거비도 올라가 인구를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는 수도 서울의 인구 규모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사회적 배경은 고향이나 졸업한 학교 소재지 등이 해당된다. 나서 자란 곳이나 연고지가 있는 곳이 거주지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교육여건이나 치안상황은 물론,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대도시일수록 치안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자연 조건은 특이한 자연경관을 말하며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지방자치체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견제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자기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주 사소한 보이는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등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그에 비하여 역사적인 자산을 많이 가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순례길'을 제안하고 싶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개별적으로 나뉘어 있는 '민주화운동사적지'를 주제별로 선택하여 걸을 수 있도록 길로 연결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나무나 꽃을 정하여 주변에 심고 걷기 좋은 거리로 단장하며, 그곳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정표도 세우도록 한다.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어디를 종착지로 해야 할지, 대부분의 광주시

민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달성한 정치적인 민주화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정치적인 민주화 없이 오늘의 경제성장이나 국가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를 반문하면 그 대답이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구매력(PPP) 기준이나 1인당 국민총생산(GNP per capita) 기준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 가운데, 도시국가 등 특수사례를 제외하면 독재국가는 없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발전의 요체가 되는 창조경제와 독재체제를 대비하면, 민주화가 단순히 정치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더운 여름이나 눈 내리는 겨울에도 '가슴 뜨겁게 걸으며 치유받는 성지'가 되면,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와 전남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 '발(feet)'로 하는 투표'에서 지지받는 날을 기다려보다.

법조칼럼

변호사의 도덕 감정



강성두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가끔 아주 가끔 피고인(혹은 피의자)을 변호하거나 어느 일방 당사자를 위해 소송 대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세상에 몹쓸 사람이 되곤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가족 또는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는 경험은 변호사들에게겐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필자도 "고생해서 고시 합격해 어떻게 저 따위 인간을 변호할 수 있지? 돈만 벌만 다냐?"는 식의 편견을 들은 경험이 아주 적진 않습니다. 몇 해 전에도 시골의 촌부의 국선 변호를 맡게 됐는데 사소한 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상처를 입혀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필

자는 피해자의 상처가 그리 깊지 않음을 이유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을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를 법정에서 불러 증인으로 신문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정이 상했는지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필자를 힐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필자에게 어떤 식의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지만 좌우간 자신에게 피해를 가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변호를 한 것(즉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변호)에 대한 반감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필자도 화가 많이 났었지만 피해자의 순간적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간혹 주변 사람들로 부터 듣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정말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맞아도 변호를 하는냐는 물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자는 변호사를 할 이유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무고한 사람을 도와주고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잘못이 있는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변호사는 그 사람이 유죄

이든, 무죄이든 간에 상관없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 자체가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죄라고 생각되는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 어렵고 입장에 따라 아주 민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면만을 보고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일이 흑과 백처럼 분명하게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법'의 한계 안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해야 할 것입니다. 본시 변호사의 일의 기본이 피고인(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이익이라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는 자신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피고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피고인의 변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변호를 거부한다는 것이 정당한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간혹 사회적인 지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류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정당한 가치가 내일에는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그러한 기준으로 쉽게 자신의 책무를 거부하

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 혹은 그 주변 사람들로 부터 비난받을 때 항상 생각합니다. 비난하는 당신이 비난받는 피고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있는 당신을 변호하게 된다면 지금과 똑같이 열심히 변호하겠노라고, 그리고 한 가지 변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변호사의 이익이나 '세계평화' 같은 거대한 명제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변호사를 배운 것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말을 잘 하는 의뢰인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로서 가장 양심에 어긋나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유죄의 개인성이 높은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위임받고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정당한지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법과 가장 기초적인 도덕의 한계 속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당사자를 위하여 대리하는 것이 변호사의 숙명임을 알고 생활합니다. 이것이 필자가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덕 감정'입니다.

社說

세계 수영선수권 유치 광주시민의 승리다

지난 19일밤 스페인 바르셀로나로부터 날아든 2019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후보는 빛고를 광주에 또 하나의 기회와 희망을 던져줬다. 2015년 하계U대회에 이어 이 도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개최지 들어간 나라 가운데, 도시국가 등 특수사례를 제외하면 독재국가는 없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발전의 요체가 되는 창조경제와 독재체제를 대비하면, 민주화가 단순히 정치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더운 여름이나 눈 내리는 겨울에도 '가슴 뜨겁게 걸으며 치유받는 성지'가 되면,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와 전남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 '발(feet)'로 하는 투표'에서 지지받는 날을 기다려보다.

그동안 광주시는 경쟁도시인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보다 한발 앞서 공을 들여왔다. 광주는 '스포츠투빙 시티 광주'를 유치 타이틀로 정하고, '최고의 준비를 갖춘 최적의 도시'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전략을 구

사했다. 지난 2년동안 국제 수영연맹에 시민들의 유치 열정을 꾸준히 전달해왔고, 최근 실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세계수영선수권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수영대회이다. 그만큼 대회유치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경제효과는 물론 세계인의 시선을 한국에 모을 황금찬스를 맞이한 것이다. 광주가 2015년 U대회를 완벽하게 개최하고 이를 발판 삼아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까지 성공시키면 세계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제 광주는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성사시킬 대회인 만큼 세계인의 머릿속에 광주의 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킬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길 바란다. 또 수영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고조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공문서 위조 사건이 준비에 발목을 잡지 않게 빠른 시일내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亞문화전당 법인화 계획 철회하라

광주시와 시의회, 광주미협, 광주민예총 등 각급 기관과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의 법인화 계획 대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문화전당의 운영체계를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정부예산 지원이 제한적이고, 정부 책임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최근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칭을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해 문화전당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구축과 콘텐츠 유통업무를 맡고 있는 개발원의 역할을 확대, 문화전당 운영의 전권을 맡기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각급 기관과 단체들은 "수익 시설이 없는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하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결국 경영 부실로 이어질 것"이

라며 법인화 철회를 촉구했다.

문화부는 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문화전당 전담인력을 뽑기 어렵고, 개관 준비를 서두르기 위해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국가기관을 신설해 문화개발원을 흡수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면 되는 일이다.

특별법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경한다는 건 옳지 않다. 광주시와 문화단체 등이 정부가 문화전당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려는 수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지 의구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한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립 위치고, 결국 경영 부실로 이어질 것"이

無 等 鼓

영국 런던 베이커가 221-B. 명탐정 셉록 홈즈의 집 주소다. 코난 독일의 소설 속에서 홈즈와 친구 왓슨 박사가 함께 살았던 곳으로 묘사된 이곳에 지금은 셉록홈즈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전 세계 셉로키언(Sherlockian·셉록 홈스 추종자)들에게는 당연한 성지 순례 코스. 최근에는 영국 드라마 '셜록'이 인기를 모으면서 주인공 역의 베네딕트

코난 독일과 생벽을 이루는 '추리소설의 여왕' 에거서 크리스티(1890~1976) 작품 전집(77권)이 국내에서 완간됐다. 미발표 단편 유작 '빛이 있는 동안'을 시작으로 11년만에 완간된 이번 전집은 에거서 크리스티 제2차와 정식 계약한 국내 유일의 완역본이라는 게 출판사 황금가지의 설명이다.

에거서 크리스티



'위장',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등 그녀의 작품은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고 '성경', 셰익스피어 작품 다음으로 많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난 도일에 셉록 홈즈가 있다면 그녀에게는 할머니 탐정 미스 마플과 루트염 신사 포와트가 있다.

여름은 추리소설 읽구는 홈즈 동상이 턱 버티고 있다. 박물관에 도착, 좁은 계단을 타고 홈즈의 방에 들어가면 그가 사용했다는 파이프 담배, 필기도구 등이 놓여 있다. 소설 속에서 왓슨과 홈즈가 이야기 나누던 소파에 앉아 있으면 홈즈가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깜짝 알고 만다.

기 좋은 계절이다.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화차' 작가 미야베 마유키의 신작 '솔로몬의 위증' 등 소설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적인 추천작은 "당신은 범인을 찾았나"며 책 중간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엘러리 퀸 시리즈'. /김미은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기고

광주 2019세계수영선수권 유치, 한국 스포츠사의 쾌거



김영일
광주시하키협회 회장·현안전략 대표

지난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들려온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가 광주로 결정된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기적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학수고대하며 가슴 조리다가 날아든 낭보의 기쁨과 감동은 이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을 다한 광주시 유치 관계자들에게 이 지

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

광주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당위성과 준비상황을 차분하면서도 강단있게 설명하는 유치팀의 프레젠테이션에 시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 찡한 감동도 느꼈다.

이제 우리 광주는 올림픽 다음으로 규모가 큰 2015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 월드컵, 육상과 함께 단일종목 3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개최하게 됨으로써 일약 스포츠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히 알려진 대로 202개 회원국 선수 임원 등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 10억 명에 실시간 중계, 45억 명에 언론노출이 되는 등 그 위상과 규모 면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회이다.

더욱 의미가 큰 것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그리고 세계수영선수권까지 모두 개최할 국가로 세계 스포츠

사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고, 그 역할을 광주가 훌륭히 해냈다는 것이다.

솔직히 광주시가 처음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나섰다 하면 해도 주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집행위원회(5월)를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6월)와 JCI·태대회(6월), 세계한상대회(10월)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역량을 보임으로써 시민들과 스포츠계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강문태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관계자들의 스포츠 외교역량이 빛을 발휘한 것은 이만한 이 아니다.

광주시는 세계스포츠 사상 최초로 노후아파트 재건축 방식으로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을 조성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관계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수영장을 활용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기로 하

는 등 번뜩이는 재치와 아이디어로 국제 스포츠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듯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한 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시민 모두가 광주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본다.

'시민의 관심이 곧 대회 성공'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관광객과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하고 거리질서와 깨끗한 환경 조성 등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광주는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복지와 인권,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분야에서 세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찬스를 잘 살려 광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길 기대한다.

민박집 비품 '슬쩍'...검사할 수도 없고 속상해

비행기를 타면 밤에 기내에서 내주는 담요가 있다. 지금이야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 우리나라 승객들이 유난히 이 담요를 슬쩍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어떤 항공사에서는 도난방지 장치를 달아놓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고향에서 농가 주변에 밭 300평

정도를 일구 도시 사람들에게 주말 농장으로 대어해주고 민박도 꾸며 주말에는 쉬러 오는 도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방에다가 놔둔 수건과 비누 같은 게 자꾸 없어져 너무나 속상하다고 한다. 도시 사람들이더니 싸구려 비누나 질 나쁜 수건을 갖다 놓으면 가난하고 질이 떨어진다고 할

까봐 부모님이 신경을 써서 질 좋은 비누와 수건, 휴지를 갖다 놔다. 거기다가 농촌이라 이것저것 부족하고 불편하다는 말 안들으려고 화장품 로션까지도 사다 놔왔다.

그랬더니 잘 쓰고는 그걸 슬그머니 들고 가는 사람들이 적잖다. 그렇다고 야박하게 그 사람들이 떠날 때 일일이 방에 들어가서 뭐가 없어졌는지 검사할 수도 없어서 속만 끓이신다. 만약 가졌다고 나신 사람들 앞에 세워두고 방에 가서 수건이 있는지, 약이 그냥 있는지 비누는 안 없어졌는지 검사하

면 도시 사람들은 자기네를 도둑으로 생각했다며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나도 고향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내려갔다가 겨우 민박요금 조금 받는 농가에서 한 달에 몇 개씩 그런 물건 사다가 채워 넣으려니가 힘이 쭉 빠지고 허탈하다.

요즘 다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도 이런 철저한 준비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농촌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유병화·광주시 북구 일곡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621 <F A X 227-96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